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편향된 인식

임 호 준
서울대학교

임호준(2018),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편향된 인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55-82.

초 록 스페인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사랑받으면서 최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은 한국 미디어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스페인 역사와 카탈루냐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 한국 미디어들은 이 이슈를 다루면서 편향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독자적인 정체성을 소유한 채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거쳐 온 카스티야와 아라곤 연합왕국과의 관계를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로 환원시켜, 억압적인 제국이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을 탄압해 온 역사로 이해한 것이다. 스페인과 마드리드는 특권적인 중심이고,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는 수탈당한 주변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주간지 칼럼들은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왔다. 많은 외국 언론들이 카탈루냐 사태를 복잡한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보고 있는 반면 한국 미디어들은 이것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단순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오래된 단일민족의 전통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처럼 다민족국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 이슈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길 좋아하는 한국 언론의 선정주의적 관습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오해와 왜곡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카탈루냐 분리독립, 스페인 경제 위기, 카스티야, 아라곤, 엘 클라시코,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I. 들어가며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서 스페인은 여행지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 바르셀로나에도 직항이 취항했고,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순례객을 보내고 있다. 스페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여러 TV 프로그램이 앞 다투어 스페인 현지의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을 소개하면서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스페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행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일본 다음으로 스페인이라니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이 얼마나 인기인지 짐작할 수 있다.¹⁾

스페인의 전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는 바르셀로나이다. 프랑스에 가까이 있어 여행 일정상 접근성이 좋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비롯한 가우디의 건축물이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일 것이다. 지중해에 면해있어 여름과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것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이다. 또한 축구팬들 사이에서 F.C.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벌어진 카탈루냐의 독립운동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복잡한 역사와 카탈루냐의 역사적, 문화적 이질성에 대해서도 많은 미디어들이 주목했고 시사 논객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문제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운동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언론이나 논객들의 지식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은 복잡하고 예민한 이슈인 만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외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스페인 근대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헨리 카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 연승「책 판매로 본 인기 여행지는 일본, 스페인, 베트남 다낭」『서울경제』, 2018.5.31., <http://www.sedaily.com/NewsView/1RZQUIM1Z7>

카탈루냐의 역사가 학자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연구되어 왔고, 이념가들, 정치가들, 기자들에 의해 많은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에 기반한 담론들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카탈루냐는 과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진 정보왜곡 과정의 희생물이었다.(Kamen 2015, 9-10)

즉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카탈루냐의 역사가 왜곡되어 신화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카멘의 설명이다. 이렇게 카탈루냐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 주관적인 정보들이 넘쳐나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어렵다보니 스페인 사정에 그리 밝지 않은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정보를 단순화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최근의 카탈루냐 사태를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마드리드 중심의 스페인은 자유를 탄압한 독재자 편이었고, 카탈루냐는 혹독한 억압을 당한 희생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두드러진 듯하다. 이 연구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한국 미디어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최근 불거진 카탈루냐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썰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15-20분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신문이나 잡지의 분석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카탈루냐의 역사적 독자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카탈루냐가 처음으로 정치적인 단위가 된 것은 아랍의 침입으로 기독교도들이 북쪽 산악지방에 몰려있던 11세기 바르셀로나 백작령 시기이다. 이때 바르셀로나 백작은 현재의 카탈루냐 지역과 피레네 산맥 너머 일부지역까지 백작령으로 다스렸다. 1137년 바르셀로나 백작 라몬 베렝게르(Ramón Berenguer) 4세는 아라곤 왕국의 라미로 2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딸이자 여왕 페트로니야(Petronilla)와 결혼함으로써 아라곤 왕국과 통합했다. 그 후 아라곤 연합 왕국은 번영을 거듭하여 발렌시아 왕국까지 병합하였고 발레아레스 제도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13-14세기에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현재 이탈리아의 영토인 사르데냐 시칠리 섬, 나폴리와 멀리 아테네까지 장악함으로써 광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하였다. 아라곤 연합왕국 안에는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마요르카, 세르데냐 왕국이 각각 고유의 법과 의회, 언어와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에서 번창한 해안과 활동적인 주민을 가진 카탈루냐 공국이 아라곤 연합왕국의 중심이었고 카탈루냐어는 카탈루냐, 발렌시아, 마요르카 왕국의 주된 언어였다.

1469년, 카스티야의 왕위계승자인 이사벨과 아라곤 연합왕국의 왕위계승자인 페르난도가 바야돌리드에서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이들이 카톨릭 공동왕이 되어 통합된 스페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때 카스티야의 국력은 아라곤을 압도하고 있었는데²⁾ 이 결혼동맹은 카스티야 보다는 아라곤의 필요와 열정에 의해 실현된 것이었다(존 H. 엘리엇 2000, 18). 아라곤 연합 왕국은 프랑스, 오스만 제국 등 외부의 세력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왕위계승자의 혼인으로 맺어진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연합왕국의 합병에서 특이한 점은 이것이 두 개의 왕국이 합쳐져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온전한 통합이 아니라 두 왕가간의 결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을 뿐 독자적인 정치조직, 법체제, 행정, 군대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라곤 연합왕국 내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왕국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했다.³⁾ 한편 카탈루냐, 아라곤, 발렌시아는 각각 부왕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중세까지의 스페인 역사에서 카탈루냐 공국은 다른 여러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왕위와 통치체제를 가진 정치단위의 하나였다.⁴⁾ 재정복 전쟁의

- 2) 1500년 경 카스티야의 영토는 아라곤의 4배였고, 카스티야는 이베리아 반도 전체 인구의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반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세비아, 그라나다, 톨레도가 모두 카스티야에 있었다. 게다가 카스티야는 여러 왕국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기구, 의회, 언어,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라곤 연합왕국에 비해 국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Kamen 2015, 38-39).
- 3)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공동왕으로서 카스티야와 아라곤을 통치했다. 1504년 이사벨이 죽은 후 페르난도는 혼자 통치하지만 카스티야 왕의 지위와 칭호를 쓰지 못했고(존 H. 엘리엇 2000, 147), 아라곤에서만 왕으로서 대접받았을 뿐 관리자로서 카스티야를 통치했을 뿐이다.

와중에서 여러 왕국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다른 왕국들과 연합왕국을 이룰 때 카탈루냐 공국 역시 이런 조류에 편승하여 처음에는 아라곤 연합왕국에, 그 다음엔 카스티야-아라곤 연합왕국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왕국이 합쳐져서 스페인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각 왕국의 정치체제, 법 그리고 언어와 문화까지 달랐기 때문에 이 당시의 스페인은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국민국가(nation-state)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이때의 카탈루냐 공국은 독자적인 자치조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아라곤 왕국, 발렌시아 왕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스페인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페인 국가 형성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카탈루냐만 떼어서 카탈루냐 공국이 스페인과 분리되는 정체성을 보유하고 오래 존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미디어들 역시 다른 왕국들의 존재에 대해선 무지한 채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이분법으로만 스페인 역사를 단순화하고 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를 다루면서 카탈루냐 출신의 스페인 사람을 게스트로 출연시켰다. 그리고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진행자: 언제부터 카탈루냐와 스페인이 엮이게 되었나요?

출연자: 1469년 카탈루냐 왕자 페르난도와 스페인의 이사벨 공주가 결혼하면서 부터예요

진행자: 그렇지만 한 나라는 아니었죠?

출연자: 네 엄연히 다른 지역이었어요.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달랐어요.

위의 대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이분법적 이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카스티야와 아라곤 연합왕국의 관계를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로 바꾸는 것은 스페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다. 이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카탈루냐는 아라

4) 아라곤 연합 왕국 중에서 카탈루냐 공국에는 제네랄리타트(Generalitat)이라고 하는 통치조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카탈루냐에서 이어지고 있다.

곤 연합왕국의 일부였고, 카스티야는 스페인의 일부였다. 아라곤 연합왕국을 카탈루냐 공국으로 동일화하는 것은 아라곤 왕국과 발렌시아 왕국은 물론 이후에 합쳐지게 된 마요르카, 세르데냐 왕국 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가톨릭 공동왕의 결합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카스티야 연합왕국과⁵⁾ 아라곤 연합왕국의 결합이었고 그 결과로 통합된 스페인이 탄생된 것이었다. 따라서 아라곤 왕국을 카탈루냐 공국으로 통칭하여 스페인과 대립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이분법이다.

16세기 본격적인 스페인 제국시대에 이르러서도 비록 왕은 한 명이었지만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의 이원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카스티야의 왕이자 아라곤 연합왕국의 왕이었다. 다만 부왕(virrey)들이⁶⁾ 존재했던 아라곤 연합왕국들의 자치권은 존중되었기 때문에 카를로스 1세나 펠리페 2세가 아라곤에 재정부조를 요구할 때는 아라곤 코르테스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⁷⁾ 또한 코르테스의 동의 없이는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적 변화를 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병할 때는 항상 그 지역의 법률이나 특권과 충돌하곤 했다(존 H. 엘리엇 2000, 87). 아라곤 연합 왕국 내에 카탈루냐, 아라곤, 발렌시아 왕국은 자치권을 존중받는 동시에 스페인 제국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제국 시스템이 왕국들을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중해에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아라곤 연합왕국은 강성해진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를 통한 서진(西進)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존 H. 엘리엇 2000, 185). 알다시피 스페인 제국은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투르크를 격퇴한다.

따라서 아라곤 사람들이 힘센 카스티야에 결합하여 스페인 제국 체제하에

-
- 5) 카스티야 대신 카스티야 연합왕국이라고 쓴 것은 카스티야를 필두로 레온 등 소왕국들이 결합하여 연합왕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카스티야 연합왕국은 아라곤 연합왕국에 비해 훨씬 통일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카스티야라고 부르는 것이다.
 - 6) 16세기에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나바라, 사르데냐, 시칠리아, 나폴리에 부왕이 있었고, 아메리카의 멕시코와 페루에 다시 부왕이 임명되어 모두 9명이 되었다. 물론 아라곤 연합왕국의 부왕들·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에 비해 다른 부왕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존 H. 엘리엇 2000, 192).
 - 7)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인 왕실이 제국 경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라곤 연합왕국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세금은 비교적 적었다(존 H. 엘리엇 2000, 222).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물론 1571년 펠리페 2세가 마드리드에 수도를 정함으로써 스페인 제국의 주도권은 카스티야가 쥐고 있는 것이 확실했고 아라곤인들은 이등 시민 같은 열등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치권(fuero)을 가지고 있는 이상, 스페인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수탈하거나 징병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펠리페 4세 시대의 실권자였던 올리바레스 공백작이 제국의 여러 왕국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합예비군 창설 계획을 세우고 아라곤 연합왕국에 병력을 할당했지만 아라곤 연합왕국의 코르테스는 이를 거부했다. 아라곤 연합왕국 중에서 아라곤과 발렌시아 왕국은 지원금이라도 납부하였으나 가장 부유했던 카탈루냐 공국은 병력과 지원금 아무 것도 승인하지 않았다.⁸⁾ 1639년 프랑스군이 카탈루냐를 통해 쳐들어왔을 때 올리바레스 공백작은 카탈루냐의 부왕에게 위압적으로 명령하여 돈과 병력을 끌어 모으고자 했다. 결국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사이에 6개월간 공방이 벌어져 정부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마드리드 정부에 증오심을 품게 된 카탈루냐 대중은 1640년 반란을 일으켰고 프랑스가 카탈루냐를 지원했다.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마드리드의 허약한 정부는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었다. 1641년 카탈루냐는 공화국을 선언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간섭 하에서 카탈루냐 사회는 사회적 반감과 가문들 간의 불화가 커져갔고 귀족들은 차라리 펠리페 4세의 비효율적인 정부가 강압적인 프랑스 정부보다 낫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둘씩 아라곤으로 이동해갔다(존 H. 엘리엇 2000, 403). 이런 분위기를 틈타 펠리페 4세의 군대가 바르셀로나를 포위했고 마침내 1652년 10월13일 바르셀로나는 항복했다. 카탈루냐인들은 스페인왕 펠리페 4세를 군주로 인정했다. 물론 펠리페 4세가 카탈루냐의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였다(Sobrequés i Callicó 2007, 63). 이로써 12년 동안 분리되었던 카탈루냐는 다시 스페인의 일부로 돌아왔다.

8) 아라곤 연합왕국을 구성했던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등의 왕국들에는 독자적인 의회(cortes)가 있어 왕국의 중세, 징병, 입법을 의결하기도 했지만 필요시에는 공동 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카를로스 2세가 죽고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0-1714)이 일어났을 때 아라곤 연합왕국이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펠리페 5세 대신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대공을 지지하여 카를로스 3세로 선언한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를 지향하는 부르봉 왕가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그 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과 자유를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했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태도를 바꾸어 펠리페 5세가 프랑스 왕위를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스페인 왕위를 인정하기로 하자, 아라곤 연합왕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라곤과 발렌시아 왕국은 1707년 펠리페 5세에게 굴복하여 법과 자유를 빼앗겼지만 카탈루냐 공국은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1714년 9월 11일 부르봉 왕조의 군대는 마침내 바르셀로나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1716년 1월 신헌법(Nueva Planta)의 발효와 함께 카탈루냐 공국을 포함한 아라곤 연합왕국의 모든 특권은 폐지되었고, 부왕은 총사령관으로 대체되었으며 행정기관과 법정에서 카스티야어가 사용되어야 했다(리처드 허 2006, 223).⁹⁾ 이렇게 해서 현재의 카탈루냐인들은 1714년을 자신들이 독립을 잃은 해로 규정하고 9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1714년 이전에 카탈루냐가 독립국가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승되는 왕위 아래 -스페인 전체로 보면 부왕이었지만- 독자적인 행정조직, 사법체계, 군대,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세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아라곤 연합왕국 그리고 스페인의 하위 정치조직으로서 존재했다는 점에선 연방국가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¹⁰⁾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김여준의 블랙

9) 이렇게 해서 아라곤 연합왕국은 자치권(fuero)을 빼앗겼지만 바스크와 나바라 지방은 여전히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바스크와 나바라의 자치권이 빼앗긴 것은 19세기 중엽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표방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였다.

10) 헨리 카멘은 카탈루냐가 1714년 이전에 독립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한다(Kamen 2008, 26). 참고로 영국의 *Independent* 지(紙)는 「왜 카탈루냐는 독립을 원하는가」 하는 기사에서 “카탈루냐가 전에는 독립국이었나?” 하는 소제목에 아래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상이한 언어와 문화적 유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왔고 그들의 자치권을 열성적으로 방어해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Mortimer 2017).

하우스>에서 카탈루냐 출신 출연자는 1714년 이전 카탈루냐가 마치 완전한 독립국이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진행자: 그러면 하나의 통합된 스페인이 된 것은 언제예요?

출연자1: 스페인의 왕위 계승전쟁이 있었는데 카탈루냐와 카스티야가 지원하는 왕 후보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1714년 바르셀로나가 함락되면서 우리가 스페인에 편입되었어요.

진행자: 스페인의 지배권을 놓고 한판 붙었군요. 이게 언제였어요?

출연자1: 300년 전이요.

진행자: 그럼 생각보다 오래 안되었어요. 그죠?

출연자1: 맞아요.

이렇게 해서 1714년 전까지 카탈루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왕국으로 이해되고 있고 불과 300년 전에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저서 독립을 잃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진행자는 18세기 초의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카탈루냐와 카스티야가 전면적인 대결을 벌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한국일보』에도 「300년 된 카탈루냐 독립의 꿈 실현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에 보면 “1714년 9월 11일 스페인에 병합된 카탈루냐”라고 서술됨으로써 1714년 이전에는 카탈루냐가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신지후). <썰전>에서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왕국을 꿈꾸던 카탈루냐”라고 자막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독립을 원했던 카탈루냐의 꿈이 1714년에 무너진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백작령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 카탈루냐 공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아라곤 연합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 아라곤 연합왕국의 필요에 의해 카스티야와 통합하여 1714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확실한 것은 1640년의 민중 반란을 제외하곤 카탈루냐가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들은 카탈루냐가 오랫동안 스페인과 무관한 완전한 독립국으로 존재하다가 1714년에 가서야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저서 병합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역사적 정당성을 마련해주고 있다.

III. ‘엘 클라시코’로 굳어진 가해자 마드리드 / 피해자 바르셀로나 의식

국내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스페인 프로축구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간의 라이벌 관계가 잘 알려져 있고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두 팀의 경기는 많은 축구팬들이 지켜볼 정도로 유명하다. 두 팀 간의 라이벌 의식이 뜨거운 것은 스페인 역사와 정치의 상징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클럽 이상의 클럽(Més que un club)”이라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모토에서도 알 수 있듯 F.C.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시민의 저항의식을 상징하여 왔다. 그런데 이분법으로 재단하기를 좋아하는 국내 미디어는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시절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가해자와 기득권 층에 의해 비호 받은 구단으로, 이에 반해 F.C. 바르셀로나는 역사적으로 핍박받은 구단으로 여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대표적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내전으로 기억될 스페인 내전을 통해 한 세기 동안 카스티야, 카탈루냐 민중의 대표자 노릇을 했다. 그들에게는 총칼이 아니라 축구공이 쥐여졌다. 두 팀은 축구공을 통해 서로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기에 최고 팀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 내전을 일으키고 국가원수에 오른 프랑코 총통은 레알 마드리드의 열렬한 팬이었다.(이남훈)

이 설명은 스페인 내전을 카스티야와 카탈루냐의 대결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카스티야 민중의 대표자인 레알 마드리드는 프랑코의 지지를 받았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가해자 측, F.C. 바르셀로나는 피해자 측에 속한 구단이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이러한 이분법은 더욱 강화되며 두 구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레알 마드리드는 왕실 구단이라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F.C. 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시오 시스템을 의미하는 듯하다- 선수들의 연봉도 준다고 하면서 시민구단임이 강조된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역시 F.C. 바르셀로나처럼 소시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구단이지 왕실이나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¹¹⁾ 그런데도 자막에는 “스페인 왕실군” 레알 마드리드와 “카탈루냐 시민군” FC 바르셀로나의 대결로 표현된다.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왕실군과 시민군이라는 표현은 선악의 이분법과 다름없다. <썰전>의 논객들 역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이분법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논객1: 일설에는 캄프 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 경기가 벌어지면, 마드리드는 카스티야의 중심지이고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의 중심지잖아요, 경기시작 17분 14초가 되면 (관중들이) 다 일어나죠. 엘 클라시코가 치열한 이유가 단순히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명문 축구단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마드리드에 중심을 두고 있던 프랑코가 공화국 수립된 직후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수립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거길 점령하고 나서 F.C. 바르셀로나를 이름을 카탈루냐식 표기에서 스페인식으로 바꿔버렸죠. F.C.를 C.F로 거꾸로 바꿨어요.

논객2: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고 민족도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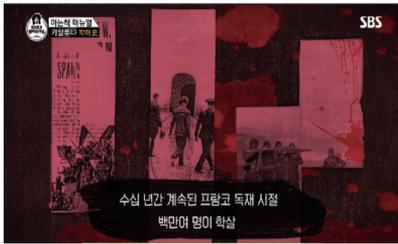
논객1: 언어가 달라요. 원한이 있죠.

11) 레알 마드리드의 소시오는 약 10만 명으로서, 스페인 라리가 축구클럽 중에서 현재까지 소시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빌바오, CA 오사수나 네 팀이다.



스페인 내전에서 마드리드가 프랑코 반란군의 중심이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이에 끝까지 저항한 희생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이다. 오히려 내전 발발 당시 프랑코가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공화국 정부가 소재해 있던 곳이 마드리드이다. 프랑코 반란군이 마드리드를 에워싸고 공격했을 때 공화국과 시민들은 “통과할 수 없을 거다! No pasarán!”라는 유명한 구호를 외치며 결사적으로 마드리드를 지켜냈다. 마드리드 시민 대다수는 오랜 반란의 전통에 따라 참호를 파고 부상자들을 돕고 군수품을 날랐다(세바스천 벨푸어 2006, 320). 이 때문에 프랑코 반란군은 마드리드를 함락시키지 못한 채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에브로 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1939년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를 함락시킨다. 그리고 발렌시아를 함락하여 마드리드로 가는 모든 해상 보급로를 끊은 후 최후로 마드리드를 함락시킴으로써 내전의 종지부를 찍는다. 사실이 이런데도 논객들이 설명할 때 화면으로 스페인 내전에서 싸운 공화국 병사들과 시민군의 사진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이 카탈루냐 지역!”이라고 설명된다. 이로써 마드리드는 프랑코파의 중심이고, 바르셀로나는 공화파의 중심인 것처럼 오인된다.

『시사저널』에 실린 카탈루냐 독립 관련 해설 기사에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시기, 카탈루냐는 마드리드의 중앙정부에 정치적 자치를 요구했다”고 나와 있다(김희권). 스페인 내전 때 카탈루냐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바르셀로나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드리드의 중앙정부란 프랑코 반란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역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매우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다.



진행자: 스페인 내전 때 카탈루냐 사람들이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어떤 핍박을 받았나요?

출연자2: 20세기에 유럽 전체적으로 파시즘의 열풍이 불고 있었잖아요. 파시즘의 특징은 안에 있는 적을 찾아서 숙청시킨다는 거예요. 스페인 안에는 파시스트파와 사회주의파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파들은 대부분이 카탈루냐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카탈루냐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니까 소수민족을 특별히 탄압했어요.

진행자: 그때 얼마나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출연자2: 진짜 많이 죽었어요.

출연자1: 많이 많이 죽었어요.

내전 발발 당시 바르셀로나에 급진적인 좌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무정부주의 전국 노동자 연합(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adores: CNT)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 사회주의의 두 축인 노동자 총동맹(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과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의 본부는 마드리드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아나키즘의 아성이었고, 마드리드는 사회주의의 근거지였다(앤터니 비버 2009, 43-44).¹²⁾ 개전 초기 프랑코 반란파의 마드리드 포위공격에서 CNT, UGT의

12) 내전 발발 직전 CNT의 회원은 30만명 정도였던 반면, UGT의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UGT는 1888년 바르셀로나에서 창설되었지만 1899년 마드리드로 본부를 옮겼다. CNT와 UGT는 내전 전 스페인 노동조합의 양대 산맥으로서 주로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다. CNT의 급진노선은 UGT의 온건 노선과 자주 충돌했기 때문이다(앤터니 비버 2009, 50).

노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의용군은 마드리드를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내전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카탈루냐에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마도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을 혼동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쨌든 내전 당시 바르셀로나는 진보 쪽이었고 마드리드는 파시스트의 본거지였다는 이분법은 터무니없는 설정이다.

또한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색 화면 아래, 자막에 나오듯이 프랑코 독재시절 프랑코가 학살한 인원이 백만 명이나 되고 그 중 대부분이 카탈루냐 주민이었다는 것 역시 악의적인 과장이다. 스페인 현대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종전 후 약 5만 명이 ‘빨갱이’라는 혐의로 프랑코 정권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ichards 2013, 24). 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의 배후에서 7천 명의 성직자를 포함하여 3만 8천명에서 5만 5천명의 ‘공화국의 적’으로 간주되어 공화파에 의해 처형된 것에 대한 복수였다(Richards 2013, 24). 그런데 무려 백만여 명이 프랑코 시대에 학살되었고 그 숫자의 대부분이 카탈루냐 주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내전 직후 1940, 1950년대 카탈루냐의 인구가 3백만 명에 불과했는데¹³⁾ 백만 명 가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왜곡과 과장을 통해 가해자로서의 마드리드와 피해자로서의 바르셀로나가 대비되고 있다.

물론 스페인 내전이 끝난 후에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프랑코 정부가 들어서고 프랑코 정권은 지역민족주의를 박해한다. 하지만 마드리드를 가해측, 바르셀로나를 피해측으로 놓는 것은 오해에 근거한 단순화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드리드 연고의 대표적 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 역시 독재정권의 지원을 받아 특권을 누린 구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 축구 해설가는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축구장을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이 썼다.

경기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다. 마드리드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이곳은 레알 마드리드가 역사적으로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단적으로

13) <https://www.idescat.cat/pub/?id=aec&n=245&lang=en>

로 보여주는 사례다. [...] 그 이름에서부터 1950년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상징하고 있는 이 경기장은 존재 자체가 프랑코 시대의 철권 통치를 떠오르게 한다. 철저하게 마드리드 중심의 타 민족 억제 정책을 펼 프랑코는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와 후원을 통해 이 팀을 유럽 정상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적대감은 절정에 달했고 지금도 카탈루냐, 바스크와 같은 지방에서는 그들의 팀이 레알 마드리드를 꺾을 때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뒤덮힌다.(서형욱 2005, 182-183)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축구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현재 고급 아파트 지역으로서 땅값이 비싼 것은 맞다. 하지만 축구장이 건설되던 1940년대에 이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심을 벗어난 지역으로서 그리 비싼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다 마드리드가 팽창하면서 고급 아파트 촌으로 변했고 땅값이 비싸진 곳이다. 레알이라는 칭호 역시 가장 먼저 2부리그 팀을 비롯하여 스페인의 여러 팀들이 왕실로부터 레알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역사가 있고 이 팀들은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왕실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프랑코는 처음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대중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을 보자 축구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말기에는 축구복권(*la quiniela*)을 할 정도로 축구 팬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 그가 좋아했던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마드리드 체육 비행단 *Atlético Aviación de Madrid*’으로 이름을 바꾼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였다.¹⁴⁾ 마드리드 체육 비행단은 1950년대 중반까지 레알 마드리드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¹⁵⁾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컵이 창설된 1955-1956 시즌부터 1959-1960 시즌까

-
- 14) 원래 아틀레틱 빌바오의 형제 팀으로서 마드리드에 연고를 둔 아틀레틱 클럽 데 마드리드(*Athletic Club de Madrid*)가 내전이 끝난 후 선수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전 때 프랑코파에 의해 창단된 공군 체육 비행단과 1939년 합병하여 ‘마드리드 체육 비행단’이 된 것이다. 군인 출신인 프랑코가 이 팀에 가장 애정을 가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 15) 프랑코가 정권 초기 레알 마드리드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적으로 입증된다. 프랑코가 정권을 장악한 1939년부터 1954년까지 1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한 번도 리그를 우승하지 못했고 두 번 총통컵을 우승했을 뿐이다. 이 기간 동안 F.C. 바르셀로나는 다섯 번 리그를 우승했고 네 번 총통컵을 우승했다

지 연속으로 유럽컵을 5연패한 것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의 수완으로 역대 최고의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각국 리그의 우승팀만 참가했기 때문에 네 번만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섯 번의 유럽컵을 우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운이 따르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오자 프랑코 정권은 크게 기뻐하여 장관이 축전을 보내거나 선수들을 위해 파티를 열고 국가 유공자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Fernández Santander 1990, 154). 유럽에서 부유하지 않은 나라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초기의 유럽컵을 독식하자 유럽인들이 레알 마드리드가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직을 맡아 팀의 전성기를 이끈 신화적인 구단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정권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5센트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Arroita 2014, 240). 축구 연구자 던컨 쇼 역시 베르나베우가 프랑코주의자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정권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베르나베우는 명백하게 프랑코 지지자였지만 총통의 방법을 모방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아마도 클럽 팬들 대부분도 프랑코 지지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것을 증명할 판단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레알 마드리드는 총통과 그의 각료들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축구 연맹을 지배하지 않았고 심판들로부터 체계적인 편파적 판정을 받은 것도 없다.(Shaw 1987, 60)

1936년 내전이 발발했을 때 F.C. 바르셀로나의 구단주였던 조셉 수놀(Josep Sunyol I Garriga)이 프랑코 군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통해 프랑코는 일찍부터 바르셀로나 축구팬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F.C. 바르셀로나 구단 역시 정권에 우호적인 구단으로 바뀌어갔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1957년 누 캄프 경기장을 준공하면서 2백만 페세타의 막대한 빚을 졌고 파산 일보직전까지 갔다. 그때 정부의 자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프랑코였다(Arroita 2014, 243).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바르셀로나 구단은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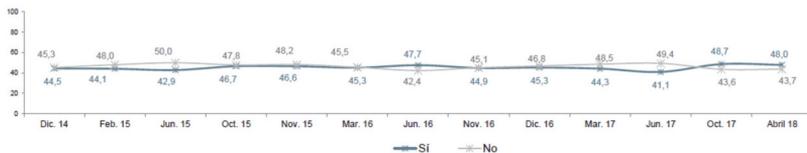
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코에게 감사장을 주었다(Arroita 2014, 244).

물론 바르셀로나 구단의 프랑코 정권에 대한 아부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관계는 주변 대 중심, 카탈루냐주의와 마드리드 주의,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인식되었다(Fernández Santander 1990, 159).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대립은 불행했던 스페인 역사에 대한 오해가 과장되어 상징화된 것이지 실제적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술 더떠 우리나라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시가 가해자의 상징이 되고, F.C.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시가 피해자의 상징이 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IV. 최근 카탈루냐의 상황에 대한 국내 언론의 왜곡된 인식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카탈루냐에서 진행된 모든 설문조사에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엇치락 뒤치락 하며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다.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아래의 <표 1>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카탈루냐 정부인 제네랄리타트에 속한 여론조사센터(CEO)에서 카탈루냐 주민들을 대상으로 “카탈루냐가 독립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2014년 12월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효화된 카탈루냐 주민투표가 처음 실시되었던(2014년 11월) 직후



<표 1> “카탈루냐가 독립국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 Centre d'Estudis d'Opinió

이고, 독립 찬성 비율이 처음으로 더 높았던 2016년 6월은 카탈루냐 독립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 ‘함께 찬성을 향해(Junts pel Sí)’가 또 다른 좌파 민족주의 정당 ‘민중연합후보(CUP)’가 연합함으로써 카탈루냐 의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스페인의 헌법 재판소에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한 세 단계의 과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2017년 10월은 알다시피 독립여부를 물어보는 카탈루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던 때이다.

즉 카탈루냐 독립의 희망이 보일 때는 독립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독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졌다가 독립의 시도가 불발로 끝나게 되면 독립에 회의적인 의견이 증가하면서 다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처럼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땐 독립지지 세력이 결집하여 이제까지 조사된 것 중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지만(48.7%)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찬성비율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카탈루냐 현지에서도 독립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엇비슷한 편이지만 이 문제가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에선 카탈루냐 주민들의 압도적인 독립 의지를 스페인 중앙정부가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절전>의 한 대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간다.

논객2: 이번에 90%가 찬성투표를 했다 그러지만 실제 투표율은 4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카탈루냐 내에서도 완전한 독립이 지배적이 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논객1: 다 섞여 있는데 문제는 카탈루냐 지역에 원래 카탈루냐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 그냥 독립할래? 물어보면 원래 카탈루냐 연고가 있는 카탈루냐 주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독립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우리가 스페인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큰데.

위에서 본 카탈루냐 정부 여론조사센터의 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카탈루냐에서 독립을 바라는 주민들은 언제나 50% 아래에 머물러 왔다. 논객2의

말은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논객1이 말하듯, 19세기 말부터 카탈루냐에는 스페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20세기 말부터는 외국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인구의 이동이 활발한 시대에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를 ‘토박이’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간경향』에는 카탈루냐에 살고 있는 현지 교민의 글이 실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탈란들이 카탈루냐의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에 찬성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카탈란들이 그들만의 언어나 역사, 문화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문제는 그와는 별개이다. 주민투표가 있던 전날 저녁, 두 명의 카탈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주민투표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었다. 한 친구는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주민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친구는 독립에 반대하여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르셀로나는 다른 카탈루냐와 달리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이고 카탈란 외에도 다른 스페인 지역 출신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때문에 지로나 등과 같은 카탈루냐의 다른 지방과는 다소 다른 정서를 보인다. 하지만 독립 반대 여론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나상수)

물론 주변 친구 몇 명의 사례로 보아 카탈루냐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단순화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카탈루냐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카탈루냐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진행자: 스페인에 사는 카탈란들은 자기를 스페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보통?

출연자1: 바르셀로나 사람 아니면 카탈란 사람이라고 해요. 스페인 사람이라는 말 안합니다.

진행자: 에스파냐.

출연자1: 네, Española 안해요.

진행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출연자1: 네 많아요. 제 친구 다 그래요.

진행자: 예를 들어 투우 이라면 어디 문화예요?

출연자1: 스페인 문화예요. 이것은 제 문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카탈루냐 문화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2년 한국과 스페인 (월드컵) 4강에서 경기를 했던 말이죠. 그럴 때 카탈루냐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스페인 응원합니까? 한국을 응원합니까?

출연자1: 스페인 지는 걸 좋아했어요.

진행자: 스페인이 지는 걸 좋아했다구요?

(모두 웃음)

출연자1: 그 당시 스페인 대표팀은 카탈루냐 선수말고 스페인 중앙적으로만 구성됐어요.

진행자: 카탈루냐 선수를 안 뽑았다?

출연자1: 그래서 졌어요.

(모두 웃음)

진행자: 자 이정도입니다.

진행자의 질문과 출연자의 대답이 서로 맞지 않지만 출연자의 대답처럼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모두 자신이 바르셀로나 사람이거나 카탈루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과장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 팀의 경기라면 몰라도 스페인 대표팀의 경기에 대해 카탈루냐 사람들이 지기를 바랐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자막에도 나왔듯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스페인 대표팀에는 3명의 카탈루냐 출신 선수가 뛰고 있었다.

그렇다면 카탈루냐가 독립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은 카탈루냐의 역사적, 문화적 이질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그 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 역시 경제적인 요인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¹⁶⁾ 스페인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카탈루냐의 지역주의 문제가 2000년대 후반부터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불거지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들이 약

16)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인들은 그들이 스페인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Jones, *The Guardian*),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독립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많은 카탈루냐 사람들이 부유한 자신들의 지역이 가난한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다”(Sykes, *Euronews*).

진을 하면서 본격적인 분리독립의 움직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¹⁷⁾

카탈루냐의 경제적 불만을 설명함에 있어 국내 미디어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의 상대적 부유함을 과장하여 소개하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스페인 경제에 가장 앞선 곳”(『시사저널』, 김회권),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유일한 지역”(〈썰전〉), “바르셀로나는 주민소득이 4만불 정도”(〈썰전〉) 등의 표현이 그런 예이다. 카탈루냐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부유한 지역인 것은 맞지만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아니다. 산업적으로 보자면 19세기 빌바오를 중심으로 한 바스크의 철강산업은 바스크를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만들었다. 스페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연소득이 가장 높은 주는 마드리드(32,723유로), 바스크(31,805), 나바라(29,807), 카탈루냐(28,590), 아라곤(26,328) 순이다(INE 2017, 29). 마드리드 다음으로 바스크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높다. 하지만 바스크는 조세징수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중앙정부에 양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겪고 긴축재정을 펴는 와중에도 바스크 사람들은 분리독립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¹⁸⁾

카탈루냐의 독립주의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디어 역시 경제적인 이유 외에 카탈루냐의 역사적, 문화적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어준의 블랙 하우스>에도 외국인 남자 출연자는 외국 언론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을 스페인의 경제위기와 세금 문제로 주로 설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탈루냐 출신 여성 출연자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

17) 경제 문제에 더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를 의결한 2006년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회의 결정이 2010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되면서 무효화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 시기에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주민의 비율이 20%에서 40%로 뛰었기 때문이다. 카탈루냐 통계센터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냐 인구는 10% 초반 밖에 되지 않았다(Centre 2018, 12).

18) 최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바스크인들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거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바스크 분리독립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어 카탈루냐의 독립 열기가 바스크로 옮겨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나라 스페인 중앙정부의 지나친 부패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썰전>의 논객도 카탈루냐가 분리독립 하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이 논객은 “함께 속해서 좋게 살아가고 싶은 집단, 그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으니까” 카탈루냐 독립에 한표를 던진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다른 논객은 “시대의 흐름은 분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큰 협력의 질서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독립은 권리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는 말로 맺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수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논객마저 카탈루냐 독립에 판단을 유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울게 된다.

이에 비해 보수적 색채의 <주간조선>은 캐나다에서 퀘벡의 사례와 비교하며 현실적으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카탈루냐에서 독립의 정서를 일깨운 카탈루냐 정치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17년 카탈루냐의 분리주의자들은 1995년 퀘벡의 분리주의자들과 생각이 다를까. 지역은 다르지만 속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 카탈루냐의 미래를 생각할까? 캐나다와 퀘벡의 관계를 설명하는 똑같은 논법을 적용해 보자. ‘스페인 없는 카탈루냐는 생존할 수 있을까’ 극동의 국외자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분리주의 정치인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속인다. 카탈루냐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악화될수록 주민들은 더 많이 카탈루냐를 떠날 것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하다.(조성관)

이렇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퀘벡의 경우처럼 분리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독립을 원하는 세계 어느 곳도 사정이 똑같은 곳은 없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사정이 있고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 또한 다르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분리독립을 주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분리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자치권 확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카탈루냐 민족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온 카탈루냐 독립지향 정당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

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페인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마다하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집권 국민당(PP)과 라호이 수상의 책임도 상당하다. 외국인론들은 스페인 정치인들의 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만이 극단적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양측을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Barrio).

이처럼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단순화시켜 분리주의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보수 언론의 논조 역시 비판 받을 소지가 많다. 결국 한국의 언론들은 카탈루냐 사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의 정치상황을 은근히 빗대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V. 나가며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디어는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억압받고 희생을 강요당해온 카탈루냐인들의 항거 정도로 여기며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독립이 불가능할지언정 독립 의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서양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미디어는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보인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이 사랑받는 여행지로서 낭만적인 상상과 함께 ‘태양과 정열의 나라’로 소비되었을 뿐, 그 내부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스페인 내전’, ‘독재자 프랑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등이 스페인에 대해 친숙한 것들이지만 이마저도 쉽게 단순화되어서 이분법의 논리로 이해되었을 뿐이다. 스페인이 국제무대에 나오게 된 것도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에 본격

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더욱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내 미디어들이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논객들이나 스포츠 평론가들 그리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카탈루냐 출신의 외국인이 출연하여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쏟아내고 있고 이것이 TV의 막강한 파급력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형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국민들은 다민족 국가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합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이다”라는 에른스트 겔너의 말처럼(Gellner 1983, 1), 같이 살고 싶은 사람끼리 살아야지 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굳이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 묶으려고 하는가 하는 단순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탈루냐를 역사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심정적으로 독립하려는 쪽을 지지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2017년 10월에 있었던 카탈루냐 주민투표에서 투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이 TV로 생생하게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카탈루냐의 주민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스페인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프랑코 시대에 지역민족주의에 가해졌던 잔혹한 억압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 토대가 매우 박약하다는 점이다. 국내의 스페인 관련 연구자들은 대부분 어문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카탈루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려줄 연구물이 그 동안 매우 드물었다. 스페인 역사에 대해 좋은 번역서가 나오긴 했지만 관심을 갖는 국내 연구진이 거의 없어 대중적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신화화된 역사가 국내 미디어에 쉽게 먹혀들 수 있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을 찾고 있고, 많은 언론과 미디어가 스

페인을 조명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 연구자로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낭만적인 여행지로서 피상적으로 소비되어 온듯하다. 그러다보니 스페인의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해선 평소 언론과 미디어에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번처럼 큰 일이 벌어져서야 비전문가들이 약간의 준비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미디어의 선정주의가 가세하여 왜곡과 과장이 생기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외국 신문에는 국제관련 기사가 1면 톱을 차지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우리나라 신문에선 상당히 드물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이슈에만 관심이 많을 뿐 외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스페인처럼 이른바 주요국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국내 미디어의 관심은 사실 이례적인 편이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스페인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려졌는가 하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018), TvN, 7회(2018.3.8).
 김희권(2017), “Q&A 로 풀어보는 카탈루냐의 독립”, 『시사저널』(2017.10.11).
 나상수(2017), “카탈루냐 분리독립,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간경향』(2017.11.14).
 레이몬드 카 외(2006), 『스페인사』,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까치.
 리처드 허(2006), 『밀물과 썰물 1700-1833』, 레이몬드 카 외 『스페인사』,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까치.
 서형욱(2005), 『유럽축구 기행』, 살림.
 세바스천 벨푸어(2006), 「1931년부터 현재까지의 스페인」, 레이몬드 카 외 『스페인사』, pp. 303-347.
 신지후(2015), “300년 된 카탈루냐 독립의 꿈 실현될까”, 『한국일보』(2015.9.30).
 「썰전」(2017), JTBC, 239회(2017.10.05).
 앤터니 비버(2009), 『스페인 내전』, 김원중 옮김, 교양인.
 연승(2018), “책 판매로 본 인기 여행지는 일본, 스페인, 베트남 다낭”, 『서울경

제』(2018.5.31).

- 이남훈(2011), “왜 ‘바르샤’와 ‘마드리드’는 앙숙이 되었을까”, 『시사인』(2011.4.28).
- 조성관(2017), “퀘백과 카탈루냐”, 『주간조선』(2017.11.06).
- 존 H. 엘리엇(2000),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옮김, 까치.
- Arroita, Juan G(2014), *Mentiras y tópicos del fútbol*, T&B editores.
- Barrio, Astrid and Bonnie N. Field(2017), “Is Spain Francoland? No. Has the Catalan crisis damaged Spanish democracy? Ye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2.
- Centre d’Estudis d’Opinió(2018), “Informe de resultados, BOP. 1a ola 2018”, *Generalitat de Catalunya*.
- Fernández Santander, Carlos(1990), *El fútbol durante la guerra civil y el franquismo*, Madrid: San Martín.
- Gellner, Ernest(1983), *Nation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P.
- González Calleja, Eduardo(2014), “El Real Madrid, “¿equipo de España?” Fútbol e identidades durante el franquismo”, *Política y Sociedad*, Vol. 51, No. 2, pp. 275-296.
- Gutermann, Enric and André Blais(2017), “Catalonia is deeply divided for and against independence. Heres what makes the difference?”, *The Washinton Post*, December 22.
- INE(2017), “España en cifras 2017”, http://www.ine.es/prodyser/espa_cifras/2017/index.html#1
- Jones, Sam(2017), “Why do some Catalans want independence and what is Spain’s view?”, *The Guardian*, September 13.
- Kamen, Henry(2008), *Imagining Spain: Historical Myth & National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2015), *España y Cataluña. Historia de una pasión*, Trad. José C. Valdés, Madrid: La Esfera de los Libros.
- Mortimer, Caroline(2017), “Catalan crisis: Why does Catalonia want independence? Do the majority really support it?”, *Independent*, October 29.
- Richards, Michael(2013), *Historias para después de la una guerra: Memoria, política y cambio social en España desde 1936*, Trad. Efrén del Valle, Barcelona: Pasado y Presente.

Rico, José y Rafa Julve(2018), “El ‘sí’ a la independencia de Catalunya se desploma tras las elecciones, según el CEO”, *El Periódico*, February 23.

Shaw, Duncun(1987), *Fútbol y franquismo*, Madrid: Alianza.

Sykes, Selina(2017), “Why does Catalonia want independence from Spain”, *Euronews*, September 7.

임 호 준

서울대학교
hojoon33@snu.ac.kr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Korean Media's Biased Perspective on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Ho Joon Yim

Seoul National University

Yim, Ho Joon(2018), "Korean Media's Biased Perspective on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55-82.

Abstract Since Spain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vel destinations among Koreans, recent Catalan independence movement attracted special attention and became a hot issue across many Korean media. However, due to lack of profound understanding on Spanish history and socio-political conditions of Catalonia, Korean media portrayed biased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issue. Based on the prejudiced dichotomy that Spain and Madrid have been the privileged and repressive center, and, on the other hand, Catalonia and Barcelona have been the oppressed and exploited periphery, Korean TV programs and weekly magazine columns are inclined to support Catalonia's bid for secession. Although many foreign newspapers see the Catalan issue in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dopting neutral position, Korean media tend to simplify it in good and evil. This is partly because Koreans who have long tradition of one nation-state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mplex condition of multi-nation country such as Spain. Further, Korean media, dominated by sensationalism, shows tendency of seeing political issues in black and white. This paper, therefore, points out the misunderstanding and exaggeration of Korean Media and provides detailed and impartial explication about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Catalonia.

Key words Catalonia Independence, Economic crisis of Spain, Castilla, Aragon, El clásico, F.C. Barcelona, Real Madrid